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들께!

힘겨운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평안과 새 힘 주시는 위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고달픔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실패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는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비록 멈추어 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꽃피워 갑니다. 섬겨주시는 후원에 감사드리며 2025년 1분기 선교지 소식을 전합니다.

1. 캄보디아 현재상황

이곳은 일 년 중에서 가장 무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국경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고 나라 밖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여전히 6-7%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계속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캄보디아는 미미한 편이지만 올 해는 유달리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졸업생 심방

프놈펜(리엉, 충)과 빠일린(넨) 그리고 시하누크빌(쫌빠)에서 살고 있는 졸업생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1500km가 넘는 거리를 4일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2월). 오래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지만 미루어 두었던 일입니다. 프놈펜은 이단들의 활동이 많은 곳이고 다른 지방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해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만나서 격려하고 연결된 교회로 잘 다니도록 지도하였지만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힘겹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피곤함보다 학사사역 속에서 성경공부와 신앙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발견하며 열심히 가르쳐야 할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교제와 함께 간단한 선물도 준비해서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베풀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며 더욱 잘 섬기며 세워 가겠습니다.

3. 구제사역

매월 찬양예배 시간에 헌금과 후원금의 일부를 더해서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분기 구제사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장애인 가정을 섬겼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더 많은 섬김이 센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4. 학사관 이모저모

매 월 생일잔치를 합니다. 생일축하를 받아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준비한 음식(김밥 잡채 망고)과 케익 앞에서 수줍어 합니다. 처음보다는 웃음이 많아지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에 주의 은혜가 깃들며 믿음의 싹이 자라고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2월 성경시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쳤고 이어서 4월초에 사도행전과 로마서로 성경시험을 칩니다. 열심히 가르치지만 이해하는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여전히 믿음 앞에서 멈칫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전체평균이 50점이 넘으면 4월 설연휴에 여행을 보내준다는 유혹때문인지 몰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과 노력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만들어 집니다. 저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잘 자라고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찬양예배는 십자가 앞에서 라는 주제로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찬양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설 연휴기간과 겹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좀 더 일찍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비의 날개 짓이 태풍효과를 일으키듯이 작은 수고가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방문 - 파주 예수사랑 마을교회(김남수목사) 권미경 집사님 일행이 센타를 방문(2월)하여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 선물과 함께 후원헌금을 주셨습니다.

5. 기도제목

요셉비전센타가 믿음의 도구요 은혜의 텃밭으로 잘 사용되기를.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선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90세이신 부모님(김선교사)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목포(진솔) 여수(하은) 포항(대은) 서울(채은)로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 그리고 결혼생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희 부부도 조금씩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아직은 잘 견디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기보다는 바르고 정확하게 사역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조국의 어려운 소식들이 선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섬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캄보디아 요셉비전센타에서
김경대 한신숙 선교사 올림